

광주, 독립서점 수 전국 하위권... 활성화 대책 필요

2022 '동네서점' 트렌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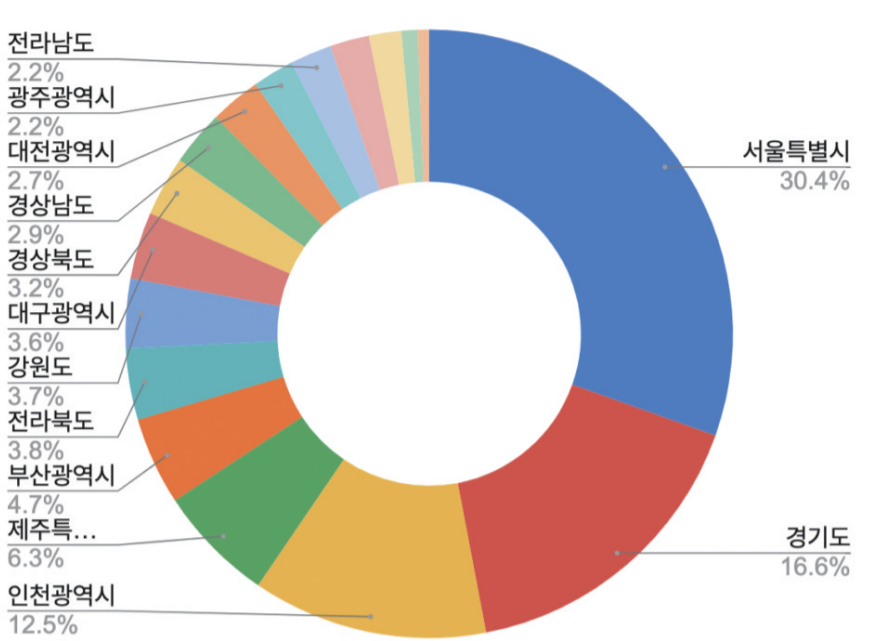
전국 증가세 불구 광주 1곳 늘어
코로나·임대료 부담 원인 '위축'
"지역 내 독서 활용 인프라 부족"

지난해 전국적으로 독립서점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광주의 경우 전년 대비 1곳 증가에 그쳤다. 광주·전남 독립서점은 각각 18곳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립서점 수도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축소, 임대료 부담, 도서 물류 경쟁력 등에 대해 광주만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독립서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네서점'이 발표한 '2022년 동네서점 트렌드'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독립서점은 81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70곳(9.4%)이 증가한 수치로 한주에 1.3곳꼴로 새 책방이 개점한 셈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수그러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독립서점의 개점이 일시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독립서점 개점이 고루 증가했지만, 광주는 1곳 증가에 그쳐 경북, 경남, 충남과 함께 전국 최하위였다. 전남의 독립서점도 3곳 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립서점은 광주·전남 각각 18곳으로 전국 하위권에 속했다.

광주·전남과 가까운 전북은 상황이 좀 다르다. 전북의 경우 독립서점이 전년 대비 지난해 총 7곳(22.6%) 늘었는데,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증가폭이 전국 1위

지역별 독립서점 수



다. 독립서점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5곳)이었다. 전국 독립서점의 59.5%(485곳)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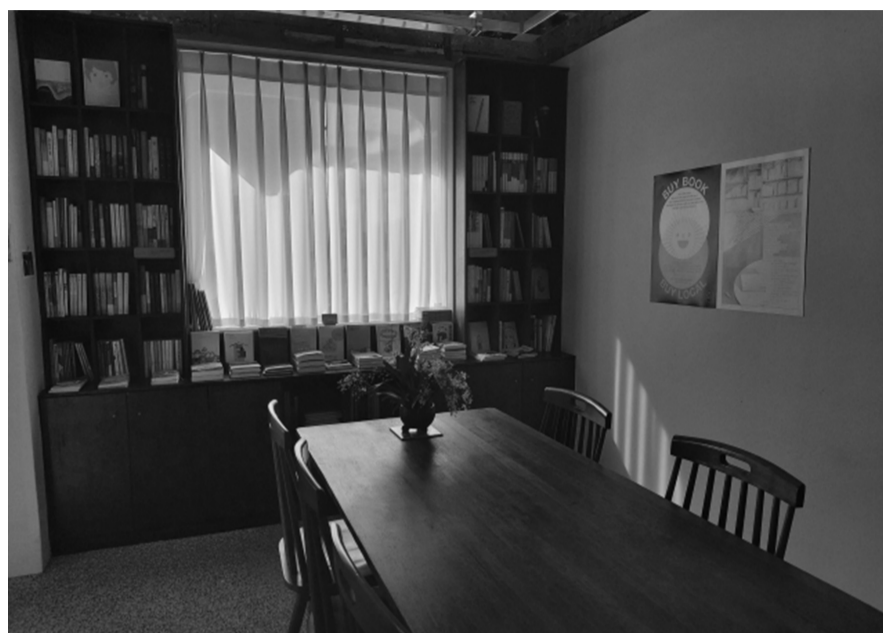
취향별 특징으로 커피차가 있는 서점(29.1%)과 독립출판물 서점(21.0%), 큐레이션 서점(15.6%)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큐레이션 서점(15.6%)과 북스테이(숙소형) 서점(3.7%)이 2020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차별화와 수익 활동의 일환으로 큐레이션 및 북스테이 겸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별 특징으로 독서모임(32.0%)과 북토크(23.7%), 워크숍(21.0%)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도독립서점은 △공간대여 △전시 △공연 △강연 △낭독 △책추천 △글쓰기 △심야 책방 △마켓 △만들기 △영화상영 △숙박 △정기간행물 △음악감상 △필사 △목욕 △문화체험 △놀이 등의 활동으로 생존기반을 찾았다. 특히 글쓰기(5.3%)와 숙박(1.7%) 활동이 2020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광주는 5개 광역시 가운데 서점 수가 가장 적기도 하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22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광주는 2021년 서점 수가 91개로 5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광주는 도서관 대비 서점 비중이 2021년 24.66%로, 16.2%를 기록한 인천 다음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가운데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독립서점 사이시옷. 카페와 공간 대여를 겸업해 독립서점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29.72%)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구(27.83%), 부산(27.39%) 순이었다. 학교 수 대비 서점 비중도 광주가 14.51%로 10.30%를 기록한 인천 다음으로 낮았다. 대전(20.74%)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18.89%), 대구(18.40%) 순으로 집계됐다.

한때 골목문화 붐을 일으켰던 독립서점이 광주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에 대해 '활용 인프라 부족'이 지목된다. 독립서점은 애초에 규모 자체가 영세한데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광주만의 특화된 지원방안을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광주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활동 축소, 임대료

부담, 도서 물류 경쟁력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광주에서 독립서점은 지역 문화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장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제일 처음 독립서점 문을 열었던 '숨'의 이진숙 대표(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부회장)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했지만, 광주에서는 활용할 인프라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며 "예를 들어 비대면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광주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만한 인프라가 없는 독립서점이 더 많다. 결국 지역의 독서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새 봄, 함께 독립영화 보고 감상 나눠요

동구인문학당 정규프로그램 28일까지 선착순 20명 모집

동구인문학당이 3월부터 영화, 음악, 음식 등 다양한 주제로 새봄 맞이 정규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인문학당은 동구가 근대교육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민 문화공간으로 상반기 프로그램 △영화인문학 극장 △다락방 음악여행 △기후밥상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영화인문학 극장'은 조대영 동구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전 광주독립영화협회 대표)의 기획으로 3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7-10시에 진행된다. 영화인문학 극장은 독립영화 감상과 함께 해당 작품별로 주제를 정해 강연 및 토론이 이어진다.

3월7일 예정된 첫 번째 시간에는 구로사와 아카라 감독에게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안겨준 영화 '라쇼몽'을 감상한다. 영화감상 이후 '자기합리화는 인간의 본능인가'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방랑자(아녜스바르다) △황금 눈에 비친 모습(존 휴스턴) △세상의 모든 아침(알랭 코르노) △도교 소나타(구로사와 기요시) △남아있는 나날(제임스 아이보리) △별거벗은 섬(신도 가네토) △카포티(베넷 밀러) △피아니스트(미카엘하네케) △육방(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총 10편의 독립영화를 마련했다.



영화인문학 극장 포스터.

'다락방 음악여행'은 문형식 DJ의 진행으로 3월8일부터 7월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문형식은 1990년대 지역에서 심야방송 '별밤' 진행을 맡으면서 '별밤지기'로 활약한 라디오 DJ다. 다락방 음악여행은 문형식 DJ가 노래에 얽힌 사연들을 알려주는 주제별 인문강좌다. 참여자들은 이 노래가 왜 나오지 않았는지, 어떻게 이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등 인기곡과 얽힌 재밌는 뒷이야기를 알 수 있다.

3월8일 예정된 첫 번째 시간에는 팝의 레전드 '아바'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LP로 다시 부르기 '김광석' △70년대를 달군 '포크 듀엣' △광주가 낳은 천재 뮤지션 '김정호' △로큰롤의 영원한 신화 '비틀즈' △금지곡에 갇힌 명곡들 △그리운 '유재하·김현식' 등 총 21개의 주제를 마련했다.

'기후밥상'은 3월9일부터 7월27일까지 격주 목요일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프



다락방 음악여행 포스터.

로그래머는 매달 다르게 분야별 채식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떡거리와 물 그리고 채식(이도경 비건셰프) △식품점가물의 진실(박숙희 식생활교육) △인권의 관점으로 본 채식(임은화 기후행동비건) △제로웨이스트의 삶(이예숙마크로바이오틱) △친환경 삶과 녹색소비(전지선 기후행동비건) 등의 주제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다.

기후밥상은 동구인문학당 공유부에서 진행되며 회차별 재료비 차원으로 5000원 이내의 비용이 발생한다. 참여자들은 불 사용의 최소화, 식물 중심의 상차림, 환경친화적 음식을 통해 먹는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오는 28일까지 동구인문학당 블로그에서 프로그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ami9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프로그램 모두 선착순 20명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062-608-2176)로 문의. **도선인 기자**

국립광주과학관-GIST, 15일 '2월 과학스쿨' 개최

국립광주과학관이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공동으로 오는 15일 오후 7시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2월 과학스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GIST 물리광학과와 이상운 교수를 초청해 '양자컴퓨터를 이해해보자'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교수는 강연을 통해 △양자컴퓨터는 무엇인지, △고전컴퓨터와의 차이점 △양자컴퓨터의 기본원리와 활용 등을 설명한다.

이 교수는 유타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박사후연구원, KIST 양자정보연구단 선임연구원을 거쳐 GIST 물리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고체 점결함 큐비트 기반 양자 컴퓨팅, 양자 인터넷 등이다. **도선인 기자**

2023년도 과학스쿨은 150명 선착순 온라인 사전예약 후 현장 입장이 가능하며,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과 GIST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과학스쿨'을 개최하고 있으며, 어려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지식을 전달하는 정기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학스쿨과 관련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과 과학스쿨 홈페이지(sciencecenter.g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광주과학관 사이버과학관에서 지난 강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062-960-6121)로 문의. **도선인 기자**

전남도립국악단, 16일 전래 영아 놀이노래 공개

전남도립국악단이 오는 16일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애니메이션 '전래 영아 놀이노래' 시리즈를 공개한다.

'전래 영아 놀이노래'는 막 태어난 아기가 첫 돌에 이르기까지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북돋아주는 노래로, 류형선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전래 놀이노래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작사·작곡한 곡에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의 노래와 연주를 덧입혀 완성했다.

'전래 영아 놀이노래' 시리즈 1탄 '두꺼비보다 잘도 걷다'는 "음마 음마 우리 애

기 두꺼비보다 잘도 걷다"며 이제 막 기어 다니기 시작한 아기의 모습을 격려하는 노랫말과 귀여운 동물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의 조화가 인상적인 곡이다.

이어 23일 공개 예정인 2탄 '질라래비 훨훨'은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의 모습을 푸른 하늘을 향해 첫 비행을 시작한 새들에 빗대어 만든 노래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어른들의 애뜻하고 다사로운 정서가 깊게 배어있는 작품이다. **도선인 기자**